2020182028 게임공학과 이규원

페르소나 인터뷰 관찰 기록

* 기본 정보

나이 : 24

성별 : 남성

직업 : 대학생

거주 지역 : 경기도 부천시

특징

* 과거, 중학교 시절까진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. 이후론, 바쁘기도 하고 안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흥미도 멀어져 흥미를 잃었다.
* 그럼에도 아직 E-Book의 소설은 종종 읽는다. 언제 어디서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개인정비 시간에 재미삼아 읽지만, 이젠 소설 외에는 그다지 흥미가 가지 않는다.
* 같은 소설을 읽는 친구가 있으면 대화 주제로 가끔 나누기도 한다.
* 이후로는 도서관에는 더 이상 들르지 않게 됐는데, 타인의 시선이 존재하고, 가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귀찮음이 동반되며 책에 큰 흥미가 없어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됐다.
* 집밖으로 나가는 걸 선호하지 않고, 보통 집에서 친구와 게임하거나 침대에 누워 소설 보는 것을 선호한다.
* 통학생이라 교통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소설을 읽는다.
*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과제 중 특정 책이 필요하거나, 중간 사이 공강 시간 때, 시험 기간 때 공부를 위해 이용한다.

환경

* 아파트 단지에서 편도 2시간 거리정도를 학교까지 통학하는 학생.
* 용돈을 받아 쓰는 입장이기에 돈이 항상 여유롭지 않다.
* 집, 학교, 시험기간엔 교내 도서관을 이용한다.

이해 관계자

* 같이 소설추천을 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
* 대부분은 자신이 읽는 소설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.

욕구, 문제

*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소설을 즐기고 싶다.
* 친구들이 자신과 같은 소설을 읽고 같은 주제로 공유하고 토론 하면 재밌을 것 같음.
* 최대한 편한 장소나 편한 자세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소설을 읽고 싶음.
* 도서관까지 가기 위해 걷는 것이나, 도서관에서 타인의 시선이 불편해 방문이 귀찮고 부담스러워 짐.
*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, 새로운 책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 읽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돈을 소비하는 것 자체에서 꺼림직함.
* 과거보다 책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딱히 소설을 제외한 책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음.

가치

* 편리함과 효율성
*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와 소통
* 경제적 효율성